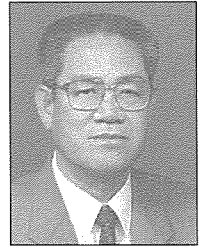


# 民不信이면 不立이라

= 말로서 말이 많으니 믿을 말을 가려낼 수 없구려 =



본회 정장 섭 상임고문  
寒梅山房主人 白甫

## 광복의 달에 이어이어 피어나는 무궁화

광복 61주년도 지나갔다. 8월이 오면 우리 농민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여 통일회원제도로 푼푼이 성금을 모아서 한강변에 우뚝 세운 농업기술진흥관에 무궁화가 아름답게 피어난다. 올해처럼 짙통무더위일수록 무궁화는 이어이어 더욱 아름답게 핀다.

우리나라를 언제부터 '근역삼천리(疆域三千里)'라 하였던가. 무궁화가 나라꽃으로 정해진 내력을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삼복무더위에 다른 꽃들은 감히 피어 날수도 없을 때 유독 무궁화만은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피어나는 개화생리는 우리민족성을 쏘옥 빼어 닮았다고 나는 믿는다. 나라마다 제나라꽃을 자랑하지만 무궁화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일본의 나라꽃인 벚꽃(사쿠라)과 비교를 하면 얼굴모습은 비슷하지만 민족성에서 그 상징성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해방'이란 말보다도 '광복'이란 말이 더욱 친근감이 간다. 이러한 우리의 무궁화를

진드기가 잘 들러붙는다고 해서 나라꽃 무궁화사랑운동이 시들한 풍조는 씁쓸하다.

## 장관감투의 교체빈도가 시대 따라 다른 까닭

요즈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각료를 임명하고 나서 뒷말이 무성하고 시끌벅적하다. 이 문제를 두고 필자가 사회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몇 해전부터 정부의 각 부처별로 장관의 교체회수에 주목하게 되었다. 시대별로 정권별로 부처별 장관이 바뀐 회수를 주목하여 살펴보면 흥미진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정부수립 후부터 '50년대와' 60년대에는 장관이 가장 빈번하게 교체된 부처가 농림부와 내무부장관 자리이다. 정치적인 시대적인 배경설명은 일단 접어두고 최근으로 건너뛰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지난날의 문교부와 교육부이고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됨)가 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당장에 임명 1주일 만엔가 논문 ××사건으로 떠들썩하더니



물러나고 아직도 후임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교육부장관자리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장관자리를 부총리로 격상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임기 5년 동안 이 교육과 인적자원육성의 수장인 부총리가 7명이나 교체되었다. 새 천년의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을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국가백년대계의 핵심과제가 교육에 의한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에 있음을 역으로 반증하는 인사결과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 스승을 없애버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자고 하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교육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보태고 이 원고의 본론으로 넘어가야겠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지·덕·체·예의 균형 잡힌 인격자를 육성하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점수를 잘 따내는 지적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스승의 권위를 짓밟고 부처이름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사람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의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였다. 학교에 참 스승이 없고 대학에 참 교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나라에도 큰 스승이 없어졌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가서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을 나라의 큰 스승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고 학제와 학기를 바꾸자고 한다. 교육의 원점을 태교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가정교육을 바로 세워 인격적으로 밑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여

야 한다. 교육 갈등의 근본원인은 교육주체의 상호불신에서 비롯된다.

### 거짓말 영터리가 진실로 둔갑하여 통용되는 세상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해방 후의 베이비 붐으로 교사가 태부족하던 그 시절에 필자는 사회 진출의 첫 관문으로서 초등교사채용시험에 합격한 일을 지금도 이력서에 한 줄 써넣을 때가 있다. 당시 상식문제 중에 삼강오륜을 묻는 문항이 있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기상천외의 엉뚱한 답으로 '삼강은 압록강 두만강 한강이요, 오륜은 자동차의 스페어타이어' 라는 답이었다. 유교의 핵심사상이며, 강령이 삼강오륜이다. 지금의 고교생들에게 삼강오륜을 물었을 때 정답을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왜 필자가 본론의 모두에 이 삼강오륜을 화두에 내 세우는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영터리 삼강오륜을 진실인양 압록강, 두만강, 한강으로...통용되듯이 영터리와 거짓말이 진언으로 둔갑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말로서 말이 많고 믿을 수 있는 진솔한 말을 가려 낼 수 없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거짓말을 발효시켜서 불신을 확대재생산하여 비극을 연출하고 있으니 때는 바야흐로 '불신의 시대' 이다.

### 진리와 참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

진리는 변할 수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정보화시대이고 21세기의 과학문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지만 성경이나 불경이 바뀔 수 있으며, 반야심경이나 주기도문이 변할 수 있는가?

유교가 종교인지 아닌지를 필자는 판별을 할 능력이 없지만 동연배의 친구 유학자가 말하기를 유교를 단 한자로 압축하면 성(誠=言+成)자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신(信=人+言)이라는 글자가 사람의 말이다. '성' 자나 '신' 자 모두 말씀 '언' 자를 안고 있거나 지고 있다.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의 개구일성이 '민불신이면 불입' 이라고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시의적절한 말이다. 이 말의 출전을 밝혀서 이 글의 결론으로 삼으려 한다.

출전은 논어이다. 자공이 정사의 도리를 물으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충족하게 하고, 군비를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니 자공이 다시 묻기를, 만부득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비를 버리라고 하셨다. 자공이 또 물어 말하기를 만부득이 한 가지를 또 버린다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먼

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니 공자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버릴 것이니, 자고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원문은 생략하거나와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군사력보다도 식량, 즉 경제력 보다도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자가 이렇게 설파한 것이 몇 년 전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란다.

### 民 無信이면 必亡이라

속담에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고도 하였고 '장부일언 중천금' 이라 하였다. 옛 선비들은 요설이나 능변보다도 진솔한 늘변(訥辯)을 덕목으로 더 평가하였다. 겨레의 큰 스승이신 도산 안창호선생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고 가르쳤다. 필부백성들의 거짓말은 폐가망신으로 끝나지만 한나라의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용장보다 지장이, 지장보다 덕장이 더 훌륭한 장수라고 무슨 고전에 밝히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세계인들로부터 '한국 사람도 한국제품도 신뢰할 수 있다' 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제적인 신뢰도의 향상이 진정한 국제경쟁력이 아니겠는가. 헛바닥놀음에 능한 지도자보다 신뢰를 방석으로 깔고 앉은 덕망 높은 지도자가 나타나 주길 간절히 바란다. 민 불신이면 불입이 아니라 민 무신이면 필망이라.

